

은행권 상반기 총당금 적립 대폭 축소…역대급 실적 예고

e대한경제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쌓아야 할 총당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총당금 적립액은 지난해 상반기 3.3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원으로 예상 경기변동에 민감한 조선·해운·건설업종이 경영사정이 급격히 개선되는 데다, 여행·숙박업종도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한국경제TV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 판매액은 517억 원이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 원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리되며,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 49명→100명으로 확대…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한겨레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오는 10월 21일부터는 투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반면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금융지주·시중은행, 위기대비 매뉴얼 매년 내라"

매일경제

올해부터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10곳은 매년 경영 위기에 대비해 정상화 계획을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선정하는 중요 금융기관은 매년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 정상화 계획에는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지배구조 평가, 핵심 사업 추진 등 내용으로 구성

의료계 반발에 또…실손청구 간소화 법안 국회에서 '공회전'

머니투데이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편리해지는 지는 만큼 소비자단체들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팝펀딩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은 22일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강경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실속 없는 실손보험…동양·ABL생명 "안 팔아야 하나" 갈팡질팡

머니S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실손보험 적자가 이어지자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단할지 출시해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은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이 되지만 중소형 생보사들은 설불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4개 손보사, 석탄발전 관련 보험 전면 중단 선언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4곳이 석탄발전 관련 보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 삼성화재와 NH손해보험은 석탄발전소 건설에 관한 보험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